

느슨해진 방역행정·소홀해진 개인수칙이 코로나19 확산 키웠다

‘청정 광주’ 민고 방역당국·시민들 방심 ‘예고된 인재’ 지적
전파력 6배 높은 변형 바이러스 출현에 광주 확산세 빨라져

한때 방역 모범도시로 꼽혔던 광주시에
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광주
시 등 방역당국과 일부 시민의 방심이 부
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코로나19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장
기화하면서 광주시의 방역행정이 느슨해
지고,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확진 시민 중 일부는 감염 증상 발현 이
후에도 다중시설을 거리낌없이 이용하고,
확진 후엔 각종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는
등 방역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방역전문가들이 그동안 수차례 “언제든
2차 확산이 올 수 있으며,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고 경고했지만, 광주시 등이 과학
적 근거도 없이 “광주는 코로나19 청정지”
라며 안일하게 대응한 점도 집단 감염 사
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선데 묘
친 격으로, 광주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
이러스가 전파력이 기존보다 6배나 높은
변종이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
온다.

7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의 코로나19 누적확진
자는 총 121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까지 10일 사이 88명이 발생했으며, 연일
추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발생
장소도 종교시설과 오피스텔, 방문판매업
체, 요양원, 사우나, 어린이집, 고시학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모범 방역도시이자 청정지라
는 평가를 받았던 광주에서 코로나19 확
진자가 쏟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자성
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전문가들의 경
고를 무시하고, 너무 방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번 집단 확진 사태를 역학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마스크조차 쓰
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
다. 일부이긴 하지만, 사찰과 교회 등 종교
시설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
다.
확진자 중 일부는 이동동선을 허위진술
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되고, 격리지점을 어기고 이탈했
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방역 컨트롤 타워’인 광주시의 초심을
잃은 안일한 방역행정도 집단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지난 2~4월만 하더라도 선제적 방역시스
템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달 넘게 확
진자 ‘0’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방역 행정 곳곳에도 구멍이
났다.
특히 방역행정을 진두지휘했던 광주시
복직건강국은 정년을 앞둔 국장과 과장 등
핵심 간부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으
면서, 담당 계장 한 명이 기본 업무부터 언
론대응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을 수 밖
에 없었다는 게 내부 직원들의 하소연이
다. 방역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는
명퇴 후 시 산하 특정자리로 옮기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등 방역행정에는 소홀한 모
습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2차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달 27일 이후 일주일여 넘도록 의료인 등
방역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광주시 민간
전문지원단’조차 소집하지 않고 방치하
다. 지난 5일야하 처음으로 긴급 대책방안
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그나마 이번 코로나19 2차 확
산에 맞춰 이들이 명예퇴직(6월 말일자)
한 뒤 곧바로 의사 출신 국장과 신임 과장



7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간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단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당국은 신창동의 대형사우나 관계자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을 선임했지만 이미 확산한 코로나19를 막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최대 감염원으로 꼽히는
동구 금영오피스텔은 국장 등이 바뀌고
나서야 뒤늦게 전면폐쇄 조치 등이 내려

졌다.
광주시 민간전문지원단 소속의 한 방역
전문가는 “누구 탓 할 것 없이 초심을 잃고
느슨한 방역생활을 해온 광주시와 방역 전
문가 그룹, 그리고 광주시민 모두 자성하

고,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2차 대유행이 예고된 올
가을과 겨울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
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시장 “행정 명령 안 지키면 무관용 일벌백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조치…고강도 거리두기 실천 당부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오전 간부회의
와 오후 코로나 19브리핑을 통해 “각 부서
와 자치구에서는 행정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정도가 심하면 즉각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6일 광주의 한 자가격리자가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하고, 광주
118번 확진자는 병원 이송을 앞두고 자가
격리중이던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광주 공
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들의 이탈 행위는 시민의 생
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확진자

와 자가격리자의 이탈 행위에 대해선 무관
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
는 위기감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
리두기를 실천해 달라”면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씻기, 일정간격 유지 등 방역수
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시장공급체계 전환…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
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물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
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
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

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
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
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
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당 1인당 10장까지
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

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비밀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
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밀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
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밀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
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광주·전남 청년유출 경제 타격 심각

광전연 분석…2018년 광주 2150억원·전남 1117억원 손실

광주 작년 유출률 21.2% 특광역시 중 2위…전남은 22.1%

광주·전남의 대학생 등 청년들이 일자리
가 없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갈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광주·전남의 경제적 손실액이 지난 2018
년에만 3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연구결과
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임형섭 선임연구원은
‘광주전남정책브리프’의 보고서 ‘청년인력
유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에서 “광주의 청년층 유출률의 경
우 21.2%(2019년)로 특광역시 가운데 2
위를, 전남 청년층 유출률은 22.1%
(2019년)로 도 가운데 2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 남아있는 청년 수는 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 대졸자가
지역 내 취업하는 비율은 51.3%, 전남 대
졸자의 지역 내 잔존율은 36.8%에 불과
했다. 특히 지역 청년 5명 중 1명이 취업
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 연구원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지
역 청년인력 유출의 지역경제 영향을 소비
·생산·외부 등 3가지 측면에서 산출한 결
과 지난 2018년 광주 2150억원, 전남
1117억원 등 3267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의 경우 청년 순유출에 따른 지역
손실은 2014년 1127억원, 2016년 2969
억원, 2018년 2150억원으로 추정됐다. 매
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0.5~
0.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은 2014년 1476억원, 2016년 993
억원, 2018년 1117억원으로 추산됐다. 전
남의 경제력 유출 규모는 매년 지역내총생
산(GRDP) 대비 0.1~0.2% 수준이다.
광주와 전남 청년 유출규모는 지역 청년
의 역외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층 지역 정
착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임 연구원은 청년인력의 유출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확
대하는 양적인 차원의 접근과 지역 청년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지식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확
대, 지역 주력산업의 전문화를 통해 청년
인력의 수도권 편향의 이동을 감소시켜 지
역 내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등의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를 제공해 지역 청년인력의 유출을 감소시
켜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질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의 질적 측면인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임금 생활의 균형
(워라벨), 산업안전, 고용차별 등) 제고,
직업 교육훈련 및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
해 고용환경 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직통
전화

062)416-6226, 010-6833-160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279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08. 광주 시청 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 결정(변경) 입안 내용				
■ 용도지역 변경				
구분	관리원	변경 내용	변경	면적(㎡)
용도 지역	종이교민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6,572
	신월(문암)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18
				48,972

■ 도시계획시설(시설도) 변경		
구분	변경 내용	비고
종이 교민 공원	면적(㎡) : 7,500㎡ → 30㎡ ~ 39㎡	특정변경
	면적(㎡) : 34,000㎡ → 25㎡ ~ 35㎡	특정변경
	면적(㎡) : 2,000㎡ → 94㎡	사정변경
	면적(㎡) : 1,500㎡ → 20㎡ ~ 29㎡	사정변경
신 월(교)노선	면적(㎡) : 1,500㎡ → 15㎡, L=183m	-
	면적(㎡) : 2,000㎡ → 15㎡, L=97m	-

2. 열람기간 : 2020. 7. 08. ~ 2020. 7. 22.(15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종이, 신월(문암)근린공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21)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계획과(☎062-410-6728)
나. 수암근린공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21)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062-960-8521)
4. 관제번호 : 개제 생략(열람일자에 비함)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옥연(400206-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56
- 피상속인 망 이옥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장흥지원 2020년단40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7월 8일
- 상속인 : 백홍동(630107-XXXXXX)
전남 장흥군 장평면 농공단지길 36
- 신고기간 : 2020. 7. 8. ~ 2020. 9. 16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백홍동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 2020년 7월 8일
- 갑 주식회사 합병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96-1, 상가동 지하층 바-1호 (영촌동, 광명중용아파트)
대표이사 고영호
- 을 해광전력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화촌1길 52-48(통북동)
사내이사 권용자

자본감소공고

2020년 7월 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300,000,000원중 금12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18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12,000주를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액면가 비율대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30,000주를 18,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일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0년 7월 8일
철성건설 주식회사 (200111-03817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암방로대로826번길 60-15, 209호(월계동)
대표이사 김 용 중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 광주 서구 치평동 1231 -5 유탑 부티크 호텔&레지던스 2710호
- 계약자 : 김 동 수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7월 8일

산행안내

- 7월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8일(수) 전남 여수 낭도 산상-돌매길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 07:3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 7월11일(토) ▲광주호산회 7월11일(토) 순창 송대봉 제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7월22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22일(수) 전북 무주 남덕유 토목동계곡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7:00, 교직원공제회관 07:10, 예술회관후문 07:20, 각화동 현대물류 07:30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